

‘더현대 광주’ 연 방문객 3000만·주변 상점 이용 1900만명

광주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3대 복합쇼핑몰 경제 파급효과 19조
대전·대구 복합쇼핑몰 외지인 이용 40%…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노력

‘더현대 광주’의 연간 방문객 수가 3000만명에 이르고, 신세계백화점 확장, 스타필드 광주 등 3개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9조 408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담긴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준한 교수가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5년간 광주시 업종별 매출액 및 이용고객 분석’, ‘대전·대구 등 타 지역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사례 조사’, ‘대규모 점포(1차: 더현대 광주) 입점이 광주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겼다.

연구 결과 광주시 상권은 전반적으로 외부고객의 유입이 낮은 내수형 상권(2024년 기준 광주시 내 점포 이용객 : 광주시민 81%, 타 지역민 19%)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 상권도 같이 쇠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주시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대부분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더현대 광주’의 연간 방문객 수는 3000만명이며, 이 중 주변 점포 동시 이용객은 1900만명으로 추산됐다.

시설 투자 1조2000억원, 생산유발효과 2조31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135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8951명 등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스타필드 광주 등 3개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9조4086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됐다.

시설 투자(6조9466억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3조68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7865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939명으로 추정됐다.

대규모 점포 운영에 따른 연간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72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5100억원, 취업유발효과 4만6933명으로 분석됐다.

‘더현대 광주’ 반경 5km에서는 화장품 업종을 제외한 슈퍼마켓, 음식점, 의류·패션·잡화, 커피·제과, 가전·가구·생활잡화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파생된다는 것이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커피·제과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별보증 확대 등 다양한 상생방안에 함께 제시됐다.

대전·대구 등 타 지역 복합쇼핑몰이 지역내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화장품과 커피·제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매출액이 상승했고, 타지역민 이용 비중도 4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앞으로 신세계백화점 확장, 스타필드 광주 입점 등이 광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거리별(3km, 5km, 10km), 업종별 구체적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에 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신용카드 매출데이터 활용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해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다.광주시는 연구용역으로 마련한 상생 방안 등을 토대로 입점 대기업과 상생협의 논의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종이로 빛은 5·18 인형 14일 광주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1980년 5월의 아픔을 되새기고 ‘추모와 기억’을 표현한 ‘오월, 종이로 빛은 시간’ 전 개막행사가 열린 가운데 임택 동구청장, 엄정에 작가와 제작에 참여한 시민작가들이 함께 작품을 둘러 보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시민 작가들이 직접 만든 종이 인형과 신발 등 24점과 엄정에 작가의 개인작품이 30일까지 전시된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농촌 의료 사막화 해소…전남도, 해피BUS데이 출발합니다

18억 투입…68개 읍면 40회 방문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 농촌 곳곳을 누빌 농촌 왕진버스가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14일 “장흥 대덕 다목적복지관에서 ‘2025 해피BUS데이 발대식’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장흥군이 함께 참여해 농촌 의료사막화 해소의 시작을 알렸다.

‘해피BUS데이’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지자체와 농협이 손잡고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왕진버스로 전남 농촌 곳곳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올해 농촌 왕진버스는 총 40회에 걸쳐 13개 시

군, 68개 읍면을 방문할 예정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총 사업비 18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7억2000만원, 도비 1억6200만원, 시·군비 3억7800만원, 농협 5억4000만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지난해의 경우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1만 95명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올해는 1만 35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에 살고 있는 고령 농민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약계층 등 누구나 왕진버스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대상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 왕진버스는 골밀도 검사와 폐활량 검사와 같은 농작업 질환과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통보기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김성 장흥군수, 이정환 원광대 장흥통합병원장, 관내 조합장,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을 기념해 행사장에서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양·한방 의료 및 검안 ▲연세대학교 스포츠재활연구소 근골격계 질환관리 ▲농가주부모임 전남지회 음식 제공 ▲광주대학교 사진촬영 및 네일아트 재능기부 등 다양한 무료봉사가 제공됐다.

농촌 왕진버스는 앞으로도 농촌 지역 방문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재능기부 형식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한부모가족 가사·주거 돕는다

가사서비스 135만·임대보증금 350만원 한도 지원

광주시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 내내이며 선정되면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지원은 회당 4만 5000원씩 연 최대 135만원 한도 내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경제활동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광주남구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주거 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지역에 총 45호의 임대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입주자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보증금 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며, 2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연중 입주자 모집을 받으며, 광주동구가족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월광주’ ‘열정 익사이팅’ … ‘G-페스타 광주’ 봄시즌 활짝

6월까지 2개 테마로 확대 운영

광주 축제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가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G-페스타 광주’를 5월부터 6월까지 2개의 테마로 구성해 확대 운영한다.

‘G-페스타 광주’ 봄시즌은 오월광주·‘열정×익사이팅’ 2개의 테마(11개의 축제·행사)로 구성된다. ◇오월광주=첫 번째 테마인 ‘오월광주’는 5월15일부터 6월1일까지 6개의 축제·행사로 구성된다.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 세계인 권도시포럼’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는 17일부터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광주 생일인 ‘시민의 날’은 24일 60회를 맞아 시청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광주국제인문위크’는 28~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고 ‘무등올림축제’는 24~25일 무등산 전통문화관에서 즐길 수 있다.

◇익사이팅 광주=두 번째 테마인 ‘열정×익사

이팅’은 오는 29일부터 6월8일까지 5개의 축제·행사로 꾸며진다.

호남 최대 규모 ‘티앤크페스타’와 ‘광주주류관광페스타’ 등 3개의 대규모 박람회가 29일부터 6월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주스트릿컬처페스타’는 6월5일부터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15일부터 31일까지 축제·행사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오월 스탬프투어’도 운영해 참여자에게 광주관광기념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